



기도 동역자님들께,

무엇인가 첫해의 첫시간들에 좋은 소식들을 듣고 싶었지만 코비드로 가족을 잃은 동역자를 보게 됩니다. 총소리와 폭행으로 수천명의 피난민이 태국 북동쪽 미얀마와 태국 국경에 피했으나 태국정부가 외면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섬기는 선교사들이 러시아가 언제 침공할지 몰라 나라를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문명 운동사 강의를 들으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가운데 팔을 벌려 마음에 상처받고, 고통받으며, 세상에 죄로 죽을 수 밖에 없는 영혼들을 안아 주시고, 주님이 죽으시므로 우리가 회복을 가져왔다는 교수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찡 했습니다. 현재 이 모든 아픔과 고통에도 주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주신 큐티속에 모든 제자가 떠나고 12 제자가 눈치보고 있을 때 주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묻으실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가 남의 아픔과 고통을 안을 수 있고, 이웃을 좀 더 돌아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참된 주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합니다.



**사헬 지역(서 아프리카 95% 이슬람 국가들) 프랑 선교사 파송식**      **제자 프레이즈 와 임 태국 사역자**      **정 성우 선교사님과 함께**  
오웬은 근 95%이상의 이슬람국가로 형성된 서아프리카 지역(사헬) 가난과 전쟁, 그리고 광야에 사는 14 개나라에 로고스 흠 선교선이 방문합니다. 이 기간에 40 명의 젊은 서 아프리카 리더들을 선교선에서 지도자 양성 훈련을 시켜 200 개의 교회가 개척되기를 바라는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재정동원을 위해 태국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기를 구하며 김선교사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일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렸으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한 성도가 20 만 바트(7 천불)의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외에 항상 동역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정성으로 헌금을 하여 드림의 영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헬의 지도자 양성을 위해 로고스흠에 필요한 재정이 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교회를 통해 채워 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2 년을 맞이 하면서 1 월 9 일에는 프랑자매를 로고스선교선(가나)에 파송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수 없는 기쁨은 임마누엘 교회가 태국의 선교를 재정으로, 사람을 파송하는 선교적 교회로 좋은 본이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로고스 선교선에 훈련받는 신입선교사들과 섬기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할때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정하여 린치선교사(오웬태국대표) 또는 잉과 프레이즈(전 오웬 선교사, 현 임마누엘교회 사역자)를 만나 그들이 앞으로 태국의 부흥을 이끄는 차세대 리더로 자라도록 교제하며 격려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들을 보면 매우 행복합니다. 저희가 30 년전에 섬기던 캘리포니아 교회에서 만난 젊은 대학생, 정성우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를 방콕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남침례교 선교사가 되어 대만에서 섬기다가 태국으로 발령 받아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선교사가 됐냐 물었더니, 자신이 저희를 만난 1 년후에 세례를 받고, 우리와 교제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변화가 있었고, 우리가 선교지로 떠난 후에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다는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때 말없고 평범한 젊은이가 훌륭한 선교사가 된 것이 너무 나 자랑스러웠고 기뻐했습니다.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드리고, 섬기는 차세대 젊은 리더, 목회자, 선교사가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대륙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준비한 미전도 종족 훈련 교육(3/6-13)으로 독일을 가게 됩니다. 올해부터 미주장신에서 선교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배우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게 느낍니다. 배우고 경험한 것을 나누고 싶은 열정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역과 선교학 공부의 발란스를 잘 맞추고 학자의 영을 갖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으나 변치 않는 주님, 그분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지만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사역하고 기도 한다는 것이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어 두려움과 염려 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주만 바라보는 하루 하루 되시며 주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중, 에스더, 부영, 한영, 다윤 드립니다.

Financial Support: 온라인으로 드릴때 이곳을 클릭해 주세요.- <https://give.omusa.org/om/donate?sc=&fund-id=8000>

To: OM, Memo: Woody & Esther Kim, Operation Mobilization, P.O. Box 444 Tyrone, GA 30290 1-770-631-0432